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재조명 2

— 각 지역 양협 운동의 전말

차성환

양협 운동의 전파와 각 지역 양협의 결성

양협은 1978년 4월 5일 최초로 부산에서 결성된 이후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사이에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양협이 있었던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을 중심으로 마산, 대구, 울산 등 영남의 4개 도시 그리고 서울, 수원 등 수도권의 2개 도시와 광주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 양협이 전파된 시기를 창립총회가 열린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부산 양협의 창립 이후 가장 먼저 결성된 지역은 마산으로 1978년 8월 12일, 대구 양협이 동년 9월 22일, 서울 양협이 동년 11월 12일에 각각 결성된다. 울산 양협은 1979년 1, 2월경, 광주 양협은 동년 3, 4월경, 수원 양협은 동년 5, 6월경에 각각 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²

1 일부 지역에서는 양협 창립총회가 열린 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문서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관련자의 기억도 부정확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울산, 광주, 수원의 양협 창립총회 일자는 문서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전파의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영남권의 마산, 울산, 대구는 부산 양협이 모델이 되었다. 또 서울 양협도 부산 양협을 주도하던 인사가 매개하여 부산 양협을 모델로 하여 결성하였다. 그리고 광주 양협은 서울 양협을 모델로 하였고, 수원 양협은 부산과 서울 양협 양쪽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양협 결성에서 광주와 수원 외의 다른 지역은 부산 양협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역 양협의 결성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서울 양협의 영향이 미쳤던 지역으로 인천, 춘천, 청주, 제주 등이 확인된다.

그러면 각 지역에 양협이 결성된 구체적 경로와 결성 이후의 활동 내용 그리고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마산의 양협 운동

마산 양협의 정식 명칭은 '경남양서보급회'였다. 또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이름은 경남양서보급회가 설립하고자 했던 직영 서점의 명칭이기도 하였다. 마산 양협의 이름을 이렇게 경남양서보급회 또는 집현전으로 명명했던 이유는 마산 양협보다는 뭔가 보편적인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산 지역에서 양협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이광두였다. 그는 마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마산에 있는 한국철강에서 수년간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후 서점을 개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1978년, 그는 서점 개업을 위한 예비조사를 하던 중 부산의 양서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부산 양협을 찾아가 견학하였다. 그리고 양협과 자신의 서점 계획을 결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협을 결성하자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서울로 가서 박진해와 김진식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이광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은 없었고, 김진식과는 마산 완월 성당을 같이 다니는 천주교 교우로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박진

하는 연세대 국문과 졸업반이었고, 고향 친구인 서울대생 김진식과 함께 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박진해와 김진식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에 관여하며 마산 출신 서울 유학생들로 조직한 재경 마산학우회에서 진보적 학습 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광두는 박진해 등에게 부산과 같은 형태로 서점을 하고 싶은데 같이해보자고 제의하였고 두 사람도 대학 졸업을 앞두고 사업을 모색하고 있던 차에 양협 운동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의기투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산 양협의 명칭을 경남양서보급회로 정하고 직영서점으로 집현전을 개점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이광두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직영서점을 열고, 그 서점을 사무실로 삼고 양협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경남양서보급회는 박진해 등이 소속한 재경 마산학우회의 선후배들과 원월성당의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회원 조직을 시작하였다.

경남양서보급회는 1978년 8월 12일에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을 정했으며 회장 이광두, 총무 윤성도, 감사 김진식, 최향이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에 개설하기로 한 직영서점은 이광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기 연기하고 우선 사무실만 마산시 장군동에 개소하였다.

경남양서보급회의 회칙에 규정된 사업은 세 가지였는데, 양서 구매를 위한 시설의 운영 즉 직영서점의 운영과 들째, 도서대출사업, 셋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먼저 시작한 사업은 도서대출사업이었다. 대출을 위한 도서를 마련하는 방법은 회원들의 책을 기탁받거나 회원의 회비로 신간 도서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회원에 가입하는 자는 가입금 2,000원을 납부하도록 정해서 그중 80%는 도서 구입비로 하고, 20%에 한하여 기타 운영경비로 하도록 정하였다.³ 회원들의 기탁 도서와 회비로 구입한 신간 도서로 1978년 9월 25일부터 대출사업을 하면서 《집현보》라는 회보를 발행하

3 경남양서보급회, 《집현보》 창간호, 1978. 8. 15.



서울 양서협동조합의 창립총회 모습

여 양서의 추천과 사업 내용의 홍보에 활용하였는데 회보는 4회까지 발행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강좌의 개설 운영인데 1978년 10월에는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근대사와 수학 및 영어 강좌를 열었다. 또 1979년 1월에는 구정을 맞아 회원들로 지신밟기패를 꾸리기도 하고, 1979년 2월에는 『인격의 자유화를 위한 서장』(김행자 저),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저)이라는 책을 교재로 여성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성 회원들은 『한국노동문제의 구조』(안병직 외 저)를 교재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⁴

또 1979년 2~3월에는 토요발표회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그 주제는 '마르크스 경제학의 휴머니즘적 접근' (박재석), '리얼리즘 문학 소고' (황성권), '분단의 역사적 배경' (박진해) 등이었다. 그리고 1979년 3월 15일에는 3·15 의거 기념일을 맞아 박재석, 김진식 등이 3·15

4 경남양서보급회, 《집현보》 제4호, 1979. 1. 22.

추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79년 4~5월에는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아놀드 하우저 저)를 교재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⁵ 또 3~5월에는 매월 1회씩 인근 함안 등지에서 회원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양, 조직 사업에 노력하였으나, 경남 양서보급회의 운영은 어려워져 갔다.

회원의 규모를 보면 창립 당시인 1978년 8월 15일 현재는 128명, 1978년 9월 25일 현재는 42명이 늘어난 170명, 1979년 1월 22일 현재 총회원 242명으로 약 반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도서대출 상황을 보면, 1979년 1월 10일까지 도서 수는 448권, 대출자는 97명으로 월 평균 대출도서가 약 90권 정도였는데, 2월에는 101권, 3월에는 51권, 4월에는 35권, 5월에는 38권, 6월에는 45권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1979년의 경과보고 자료에 의하면 6월 한 달간 회비 수납은 14명에 그쳤고, 도서판매수입도 매출액의 4% 정도로 미미하였다.

계획했던 직영서점의 개설이 장기간 연기되어 도서판매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웠고, 대출사업 자체도 신간 도서가 부족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점 개설을 책임지기로 했던 이광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빚어진 재정난과 아울러 박진해의 입대 등 핵심 인물들의 이탈로 활동은 한계에 부딪혔다. 1979년 7월 7일 경남양서보급회 임시총회에서 이광두 회장은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밝혔고 결국 공식 활동의 중단을 결의하게 되었다.

이로써 마산 양협은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 동력의 한계로 인해 1년에 걸친 활동을 마감하고 자진 해산하였다. 이처럼 마산 양협의 활동이 단명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마산 지역의 대학생, 교사, 직장인 등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로, 독서와 세미나, 발표회 등을 통한 민주주의 사상의 전

5 경남양서보급회, 「집현보 경과 보고」, 1979. 6.

과와 초보적 조직화에 기여하였다.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 182명의 직업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96명으로 가장 많은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 부산의 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이었고 이들과 마산 지역 대학생들과의 교류가 마산 양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직업은 직장인으로 52명(약29%)이며 교사가 10명(5.5%)이었다.⁶ 그 밖에 《집현보》 제4호의 신입회원 명단에는 고등학생 6명도 준회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마산 양협은 지역의 지식인, 청년학생 상당수가 결집하였으나 배경이 될 만한 종교 단체나 명망가 그룹이 부재하였고, 주도세력의 경험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자진 해산하였다. 그렇지만 마산 양협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마산의 항쟁을 선도한 경남대학교 학생시위의 중심 인물들은 마산 양협과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었고, 그들은 양협을 매개로 서울, 부산, 창원, 울산, 진주 등의 대학생, 직장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산 양협은 전국 양협 중 가장 먼저 해산하였으나 그 경험은 6월항쟁 이후 '책사랑'이라는 민주도서관 또는 민간도서관운동으로 계승되고, 나아가 대중도서관운동인 창원지역의 마을도서관 설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대구의 양협 운동

대구 양협은 박명규 주도로 1978년 6월 25일 발기하여 9월 22일 창립대회를 열게 되었다. 박명규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5년 4월 경북대 교내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6 《집현보》 창간호, 제2호, 제4호에 나타난 회원 182명의 직업별 분포를 토대로 집계하면 직장인 52명, 대학생 96명, 교사 10명, 미상 23명으로 나타나며 미상 가운데에는 대학교 졸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고받고 제명된 후 계명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78년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가 대구 양협의 결성에 착수한 계기는 후배 김근식을 통해 부산 양협을 소개받은 것이었다. 그는 부산 양협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만나 대구 양협의 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였다.

그는 선후배와 동료들의 동의를 얻어 1978년 6월 25일 이운기, 박태주 등과 함께 발기인 모임을 시작하여 1978년 7월 14일 황철식 외 11명이 참가하여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임시 조합장으로 서훈, 임시 전무에 박태주를 선출하고 직영서점으로 '한양서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7월 17일 가칭 대구양서조합 명의로 한양서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자금 380만 원은 전액 박명규가 부모님에게 엄출하였다.⁷ 그리고 1978년 9월 22일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조합원 148명이 참가한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임원과 이사를 선출하였다. 조합장에 서훈, 부조합장에 박명규, 전무에 박태주를 선임하고 조합활동을 개시하였다. 양협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조합비에 의존하였지만 초기에 서훈 조합장이 50만 원, 황철식 조합원이 3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대구 양협은 대구 지역 대학생들과 연계하여 이념 서클의 MT 활동, 노동야학활동을 지원하고 여러 부문의 운동세력이 만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였다. 양협과 서점의 운영에는 박명규, 박태주가 무급으로, 이보영이 유급으로 상근하였다. 양협은 초기에 문화운동으로 인식되어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는데 양협이 대구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것은 회지 《달구벌》 창간호를 통해서였다. 대구 양협은 회지 《달구벌》 창간호를 2만 부가량 인쇄하여 대구의 각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대대적으로 배포하였는데 당국이 이를 문제 삼아 회지의 발행을 중지시키고 배포된 회지를 수거하는 소동이 벌

7 당시 2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가격이 250만 원이었다고 하니 상당한 자금이었던 셈이다.(박명규 인터뷰)

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히려 양협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대구 양협은 초기에 회원 수가 1천 명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하였으나, 당국의 직·간접적 방해 공작으로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늘면서 조합원의 숫자가 줄었다. 대구 양협의 사무실을 겹하고 있는 직영서점인 한양서점의 길 건너편에는 경찰 1인과 중앙정보부원 1인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가끔씩 서점에 들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의 부모를 찾아가 탈퇴 압력을 넣는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양협의 조합원들은 주로 경북도내의 대학생과 교수들이 많았다고 한다. 양협의 운영은 초기에 380만 원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재정 형편이 좋았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회원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MT 활동 등으로 대학생들이 가져간 책의 외상 대금이 거의 수금되지 않아 재정난에 빠지게 된다. 그로 인해 출판사에도 외상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례가 허다했다. 가끔 대학원 교재나 구하기 어려운 금서를 대량 복제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유지해 나갔다. 박명규는 절판된 서적 또는 금서를 적극 구하여 당국의 눈을 피해 한양서점에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이렇게 대구 지역의 민주화운동에서 가교 구실을 하던 대구 양협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5·17 쿠데타 이후 계엄사령부의 압력으로 해산하게 된다. 박명규는 학생시위와 관련,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계엄사령부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 양협의 간부들은 대부분 구속되고, 조합원들은 위축되었으며, 서점의 건물주도 당국의 압력에 못 이겨 임대를 거부하는 형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결국 1980년 9월 해산하였다. 대구 양협은 1970년대 말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 특히 학생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울산의 양협 운동

울산 양협은 진영우의 주도로 1979년 1, 2월경에 창립되었다.⁸ 진영우는 1978년에 후배 윤운룡과 함께 부산 중부교회를 오가면서 이홍록, 김형기,

박상도, 김희욱, 조태원 등을 알게 되고 부산 양협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울산과의 연계를 모색해 나갔다. 그는 울산에서 어떻게 민주화운동의 발판을 마련할지 고심하던 중 울산 양협의 창립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 양협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약 50명 정도의 발기인을 구성한 세력은 진영우 중심의 홍사단 아카데미 출신의 청년 그룹, 서울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석현 등 일부 인사 그리고 일부 민주의식을 가진 종교인 등이었다.

발기인들은 양협 창립을 위한 상당한 창립 기금을 모아 사무실 겸 직영서점을 시내 중구 성남동에 개설하고 시설과 도서 구입에 충당하였다.⁹

발기인 대회 후 2개월 정도 지난 1979년 초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곧 직영서점인 '양서의 집'을 개점하였다. 창립총회에서 양협 이사장은 치과의사 김윤영, 부이사장은 이석현, 전무는 진영우, 간사는 강명숙을 선임하였다. 창립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재정과 인적 자원이었다.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상당 금액을 출자하고, 간사가 퇴직금을 전액 출자하는 등 임원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경찰은 노골적인 방해는 하지 않았으나 손님을 가장하여 동정을 살피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등 항상 감시하였다.

울산 양협은 양서의 보급과 다양한 독서토론모임의 조직화를 매개로 울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모체를 형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진보적 사회과학 도서를 비롯한 양서의 보급을 통한 비판적 사회의식의 함양, '근대사 연구반'을 비롯한 각종 독서토론모임의 조직, 전체 조합원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연대의식을 다져 나갔다. 또 소식지를 발행하여

8 진영우는 울산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홍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하였고 졸업 후에도 홍사단 출신을 중심으로 1975년경부터 토론그룹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 그룹은 당시 대학 아카데미를 지도하던 양길승, 이태복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9 진영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모은 창립 기금의 액수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현재의 화폐가치로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 소식을 전파하였다.

울산 양협이 회원은 다수가 직장인이었고, 대학생과 선진적 사무직 노동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울산에는 울산대학교밖에 없어서 학생운동이 거의 부재하였다. 또 노동자들의 의식이 미성숙하여 노동운동도 부재한 상태라 양협의 성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느렸다. 그럼에도 울산 양협의 조합원은 200명까지 늘어났고 해산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협을 이용하는 조합원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독서층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경영상태는 어려운 편이었다. 총무나 간사의 인건비는 유급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울산 양협이 판매한 서적은 절반 정도는 부산 양협을 통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서울의 출판사와 직거래를 통해 공급되었다.

울산 양협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의 여파로 탄압을 받게 되어 시련에 봉착하였다. 최성묵 목사를 비롯한 부산 양협 지도부를 검거한 부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울산 양협의 진영우 전무가 당시 대구 계명대 시위 주동자 중 한 사람인 김균식을 숨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¹⁰ 이 정보를 접한 대구 경찰은 진영우를 대공분실로 연행하여 김균식의 검거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진영우는 극적으로 도피하여 6개월 정도 피신하게 된다. 진영우가 피신한 동안 상당 기간 '양서의 집'을 폐쇄하였으며, 다시 개점하였을 때는 운영진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달리 비판성, 선명성이 없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울산 양협은 1980년 10월을 전후한 시기에 해산하게 되었다.

울산 양협 해산 후 진영우 전무 등 핵심 인물들은 본격적인 학습서클을 조직하여 민주화운동 조직을 준비하였고, 이후 가톨릭농민회 울산지부, 엠

10 부마항쟁 직후인 1979년 10월 24일 대구 계명대생 2,000여 명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시위를 벌였다.

네스티 울산지부, 울산인권위원회,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등의 조직에 적극 참여하였다. 울산 양협은 1980년대 이후 발전하는 울산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¹¹

서울의 양협 운동

서울 양협은 부산 양협의 중심 멤버로 활동하던 최준영이 대학 복학을 위해 서울로 이거하면서 전파되었다. 최준영은 부산 출신으로 197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였고, 1972년 박형규 목사가 봉직하던 서울제일교회에 나가면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운동 등 기독교 청년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74년 말 군에 입대하여 1975년 여름 부산에 배치받아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외출을 나오면 중부교회를 찾아 김형기, 김희욱 등과 만나면서 부산 양협의 창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하였다.

그는 부산 양협의 창립을 앞두고 1978년 3월 대학 복학을 위해 서울로 이거하면서 당시 서울 새문안교회 소속으로 EYC 전국회장이었던 오균현에게 부산 양협을 소개하였고, 오균현은 양협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균현을 중심으로 같은 새문안교회 소속의 허성삼 등은 양협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 준비모임은 EYC 쪽 인사 2~3명, 언론사의 문화부 기자 2~3명, 출판사 대표 2~3명, 교사 2~3명 등 10명 정도의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준비모임은 1978년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 1회씩 전체 모임을 가지고, 협동조합에 관한 의견 교환, 부산 양협 소개 및 검토, 부산 양협의 정관 분석, 서울 양협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발기위원회 발족을 준비하였다. 또 준비모임에서는 당시 해직

11 진영우 서면 인터뷰.

되어 있던 한완상 교수 등 대학 교수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8년 7월 26일 서울 양협 발기위원회(위원장 오규현)를 발기인 30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발기위원회는 매주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정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서점준비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중 교육위원회는 10월과 11월에 총 8차의 회의를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 교육자료 발간, 발기위원회 세미나, 신규조합원 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홍보위원회는 8월 9일 구성하여 홍보자료, 교육자료를 발간하고 소책자, 회보의 발간 계획을 세웠다. 조직위원회도 8월 9일 구성하여 매주 1회씩 14회의 모임을 갖고 회사원그룹, 교수·교사그룹, 주부그룹, 언론·출판그룹, 학생그룹 등 계층별 조합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다. 서점운영위원회는 8월 6일 구성하여 총회 전에 서점 등록을 하여 11월 2일부터 임시 서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사무실을 확보하며 발기위원들의 출자를 통해 200만 원의 출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하였다.¹²

서울 양협의 정관을 부산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지만 사업의 원칙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양쪽 다 롯데데이일 원칙¹³을 채용하고 있는데 서울은 여기에 양서보급의 원칙, 문화사업의 원칙을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원칙과 함께 문화사업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가급적 당국과의 마찰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¹⁴

12 「서울양서협동조합 발기위원회 경과 보고」(1978. 6. 20~10. 2) 자료에 의거.

13 롯데데이일 원칙은 1940년대 영국 노동자들이 롯데데이일에서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을 조직하면서 고안한 조합의 운영원칙으로 보통 7개 원칙을 들고 있다. 1인 1표 원칙, 이자제한의 원칙, 이용고 비례 배당의 원칙, 시가관매의 원칙, 현금거래의 원칙, 중립의 원칙 등을 말한다.

14 발기위원회 산하의 정관위원회에서 정관을 토론하면서 굳이 문화사업의 원칙을 넣지 않더라도 양서조합이라면 문화사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감시의 눈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문화사업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한다.(김종택 서면 인터뷰)

이런 과정을 거쳐 1978년 11월 12일 서울양서협동조합은 YMCA 대강당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 조합장은 조영환 변호사, 전무는 오균현이 선출되었고 각 분과위원장도 선임되었다.¹⁵

총회에서는 신규조합원 가입 및 교육, 독서토론회 및 저자와의 대화, 주간 소식지 및 격월간 조합지 발간, 양서목록 책자 발간, 소그룹 및 스터디 그룹 운영, 직영서점 및 직영출판사 경영, 기타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결의하였다.

출범 당시 서울 양협은 서대문구 대현동(신촌 주변)의 한 건물 2층을 세내어 사무실 겸 직영서점 '양서의 집'을 개설하였다. 서울 양협은 출범 이후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대화 등의 행사를 가졌는데 독서토론회에 선정된 책은 『어떻게 살 것인가』(78. 12. 6), 『유토피아로의 모험』(79. 1. 6), 『여성의 사회의식』(79. 1. 20), 『테레즈 데깨루』(79. 2. 17), 『객지』(79. 3. 3),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79. 3. 17) 등이며 저자와의 대화에 초청한 인사는 김정한 교수(『낙동강의 파숫꾼』 78. 12. 17), 이오덕 선생(『삶과 믿음의 교실』 79. 1. 27), 송건호 선생(『한국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9. 2. 24), 시인 문병란(『한국 시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79. 3. 10), 작가 김성동(『만다라』 80. 12. 13) 등이었다.

또 기획위원회는 1979년 3월 24일 현재 조합원 231명, 조합원 교육 21회를 보고하고 있으며, 산하에 소그룹 및 연구모임을 조직, 운영하였다. 1979년 3월 24일 현재, 일어반은 매주 6명이 9회, 한문반은 매주 8명이 9회, 독어반은 매회 4명이 3회, 한국근대사 연구반은 매회 12명이 9회, 사회과학연구

15 조합장과 전무 외에 부조합장 김쾌상(월간 《기독교 사상》 편집장), 간사 안일순, 감사위원장 이재현(성 바오로 병원장), 교육위원장 김정한(삼성물산 근무), 도서선정위원장 김쾌상, 사회개발위원장 문일규(삼광인쇄공사 대표), 홍보위원장 부길만(태화고무 근무)을 선출하였다.

16 『서울 양협 창립총회 자료집』(1978. 11. 12) 및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1979. 3. 24)에 의거.

반은 매회 7명이 2회의 모임을 가졌다.¹⁷

또 서울 양협은 1978년 12월 25일에 주간 《양서소식》이라는 소식지를 창간하여 양서의 소개와 사업보고 등을 하는데 제호를 약간씩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소식지에는 '양서는 양심을 낳고 양심은 정의로운 사회를 낳는다'라는 문구를 최상단에 넣었다.

서울 양협은 1979년 3월 24일 2차 정기총회에서 서점 운영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개업 초기를 제외하면 도서의 판매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도서의 이용도 역시 월평균 1권 이하가 72.3%를 차지할 만큼 저조한데 이는 서점이 도서를 제대로 구비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직영서점 이전확장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심가에서 거리가 멀어 대부분 직장인들인 조합원의 이용이 어렵고, 2층이라 일반 고객이 거의 없어 출판사와의 거래도 힘들다는 점 등이 있었다. 중심가로 이전할 경우 교통이 편리한 1층 매장이라 조합원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조합원의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79년 4월 1일부터 광화문으로 이전할 계획을 공지하였다. 이 계획대로 1979년 4월 14일 서점을 광화문으로 확장이전하였다.

제2차 정기총회(1978. 3. 25)에서 제3차 정기총회(1980. 3. 15)에 이르는 기간 중의 활동을 살펴보면 기획위원회는 신규조합원의 가입 교육을 22기부터 38기까지 17회 실시하였고, 1기부터 38기까지 총 413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또 기존 조합원에 대한 교육도 2회 실시하였다.

소그룹모임으로 근대사모임은 주 1회씩 22회, 한문반모임은 주 1회씩 14회, 사회학모임은 주 1회씩 30회, 독서토론회모임은 격주 1회씩 13회의 모임을 가졌으며, 연극연구반모임도 시작하였다. 또 매주 화요일은 사회학, 목요일은 역사학, 금요일은 사상 강좌를 개최하였고, 1980년 1월에는 16회

17 『제2차 정기총회 자료집』(1979. 3. 24)에 의거.

에 걸친 연속 세미나를 실시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주제와 함께 당시 시국과 관련한 헌법논의에 대한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업은 1979년 7월 27일~28일에 벌인 '전국 양서 읽기 가두 캠페인' 이었는데 그 지역은 서울의 광화문과 종로 2가 외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울산 등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로써 당시 전국 각 지역의 양협과 상당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이 기간 중에 8회의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제6회는 『소유냐 삶이냐』(79. 4. 12), 제7회 『여자팔자와 여성해방』(79. 6. 3), 제8회 『죽음의 형태』(79. 9. 22), 제9회 『사랑의 기술』(79. 9. 28), 제10회 『제2의 성』(79. 9. 29), 제11회 『서러운 사람들』(79. 10. 20), 제12회 『날개』, 『광염소나타』(79. 11. 10), 제13회 『사람의 아들』(80. 2. 9) 등을 주제로 하였다.

이 기간 중 직영서점의 경영상태를 보면 신촌에서 광화문으로 옮긴 이후 판매액과 이익금이 대략 5~6배가량 증가하였으나 임차료, 급료, 광고홍보비 등 경비의 증가로 인해 450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중 5명의 서점 직원이 교체되고 1979년 7월의 이사회에서 서점 불황 타개방안이 논의되는 등 경영난을 겪었다.¹⁸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해 그해 말 다시 광화문의 한 건물 2층으로 서점을 옮겼다. 1979년은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오일쇼크가 닥쳐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 든 해였다. 특히 이해 10월에 부마항쟁이 일어나자 경찰의 감시가 부쩍 강화되었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참여도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이 가중되었다.¹⁹ 제3차 정기총회(1980. 3.

18 서점의 집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서의 집'에서 D.P.E점(필름 판매, 현상, 인화 등)을 함께 하기도 했다.(주간《양협 소식》 제 11호, 1979. 10. 20, 제호가 바뀜)

19 부마항쟁 발발 이후 바로 종로서 정보과 형사 2명이 조합사무실을 감시했고 수시로 진열된 서적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며 조합원의 부모에게 양서조합 출입을 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김종택 서면 인터뷰)

15)에서 조합장 조영환은 “모든 조합의 힘은 직영서점의 경영으로 모아졌으나 경영미숙과 재정의 절대부족과 조합원의 참여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제3차 정기총회에서 제4차 정기총회(1981. 3. 21)에 이르는 기간 중의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1980년 3월 22일의 이사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조합장에 인배환, 부조합장 김정환, 전무 부길만으로 개선되었다. 또 1980년 6월 15일에는 사무실을 봉원동으로 이전하였다. 광화문 2층 서점의 임차료 등 고정 경비도 부담스러운 형편이라 당시 조합원이었던 장의균 씨의 개인사업장인 출판사 개마고원(봉원동 소재)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 시기에 교육위원회는 신규조합원 가입교육을 5회 실시하여 24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다. 전년에 비해 조합원의 신규가입이 대폭 축소되었다. 대신 기존 조합원에 대한 재교육을 7차에 걸쳐 총 88명에 대해 협동조합을 주제로 실시하였고, 1981년 1월 이사회에서는 의무이행이 미진한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하고 동년 2월의 이사회에서는 157명의 조합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하는 등 조직의 재정비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 4차 정기총회 때는 재적 조합원이 213명으로 제 3차 정기총회의 절반 수준이었다.

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그룹모임은 역사학모임을 매주 1회씩 24회, 한문반모임을 매주 1회씩 10회,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매주 1회씩 28회, 협동철학연구모임이 매주 1회씩 13회, 영어소설연구모임이 매주 1회씩 3회, 중고교생독서실태조사준비모임이 4회, 교양철학모임이 1980년 하반기에 모임을 가졌다. 이 시기에는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는데 제1회 어린이도서전시회와 제1회 어린이독서교육 강연회를 개최하고 양협 사무실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또 문학 강좌를 4회, 저자와의 대화를 1회 개최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을 개관하면 내용 면에서 문학도서, 어린이도서 관련 활동

이 활발한데 이는 1980년 5·18 민중항쟁 이후의 폭압적 상황과도 유관하다고 보여진다. 경영상태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되어 소액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조합의 경영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 간다고 감사위원회는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상대적인 호전일 뿐 경영은 여전히 어려웠다.

제4차 정기총회 이후의 활동을 살펴보면, 1981년 4월 8일에는 양서문학회를 발기하고 5월 30일 문학사회학을 주제로 제1회 양서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소그룹모임은 동화연구모임, 양서문학회, 협동조합모임, 역사학모임, 소소학과모임, 중학생독서실태조사모임 등이 운영되었으며 5월에 제2회 어린이도서전시회를 5일간 열어 하루 7천여 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루었고 제2회 어린이독서교육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또 8월에는 2박 3일로 21명의 조합원들이 여주 신록사 인근에서 수련회를 갖기도 하였다.²⁰

그리고 11월 14일에는 40여 명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주년 기념 잔치를 열고 양협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들에게 시상하기도 하였다.²¹

이상과 같이 서울 양협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1982년 3월경 사진 해산하게 된다. 해산의 직접 원인은 사무실의 유지조차 어려운 재정난이었다. 그런 재정난의 원인은 첫째, 1980년대 초반의 폭압적 상황에서 양협 운동을 불온시하는 경찰, 정보기관의 감시와 간섭이 일상적으로 행해져 조합원을 늘리거나, 후원자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²² 둘째, 각 지역에 보급한 도서 대금의 미수금이 많고 경험이 부족하여 정상적 경영이 어려웠던 점 등이다.

서울 양협이 해산한 후 일부에서 양협 재건을 위한 모임을 갖기도 했

20 《양협 소식》 7호, 1981. 8. 17.

21 《양협 소식》 11호, 1981. 12. 9.

22 부길만은 당시 서울 양협의 행사마다 당국의 간섭과 감시가 뒤따라 양협의 대중적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부길만 서면 인터뷰, 2003. 10.

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양협 의 소모임으로 출발했던 어린이도서 연구회는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유지, 발전시켜 1997년 사단법인화하여 현재 190명의 정회원과 4,000명의 자료회원을 가진 모범적 단체로 성장하였다.²³

수원의 양협 운동

수원 양협은 고정석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고정석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1977년 통일사회당에 입당하여 민주화운동을 하던 중 1978년 부산 지역을 방문하여 고교 동창인 이길동을 만나 부산 양협을 알게 되고 박점룡, 문정현 등 양협 관계자와도 만나게 되었다. 그는 1978년 11월 서울 양협이 창립되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수원에 양협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울 양협의 자료를 수원에 소개하고 서울 양협을 모델로 준비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수원에는 종합대학으로는 아주대학교가 있었고, 단과대학으로는 서울대 농대가 있어 학생운동은 있었으나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극히 미약하였다. 고정석은 수원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사들을 찾아 함께 준비모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가톨릭농민회 경기도 회장을 역임한 오익선, 가톨릭농촌여성회 회장,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백도기 목사, 노동운동가 유완식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준비모임을 거쳐 수원 양협이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979년 늦여름 무렵이었다. 창립총회를 가진 일시와 장소는 관련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한데, 양협 이사장에는 한경호(당시 방송통신대학 강사, 서울농대 축산과 졸업), 전무에 고정석, 이사에는 오익선, 백도기 등이 선출되었다.

창립 당시 양협 조합원의 숫자는 50~60명 정도였으나 얼마 후 100여 명

23 부길만 전화 인터뷰, 2003. 10.

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대학생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기독교 청년회원 등이 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수원 양협은 사무실 겸 직영서점을 수원역 앞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열었고 명칭은 '수원 양서의 집' 이었다. 당시 양협의 주요 구성부인이자 주 고객층인 수원 소재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전철을 이용해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용하기 쉬운 역전에 자리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원 양협은 창립 당초부터 수원 지역의 각 부문(가톨릭, 기독교, 불교, 학생, 노동, 농민, 빈민 등) 활동가들을 적극 영입하여 지역 활동가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민주화운동을 논의할 수 있는 합법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수원에는 학생운동 외에는 조금이라도 민주화운동의 색채를 띤 단체가 없었으므로 수원 양협은 당국의 주요 사찰 대상이었으나, 초기에는 감시나 사찰이 그다지 노골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수원경찰서에서 가끔 양협에 들러 동정을 살피기는 하였으나 수색은 하지 않았다.

수원 양협은 도서의 판매와 대출 등 기본 활동과 함께 조합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서로 추천된 도서의 저자와 조합원이 만나는 저자와의 대화 행사로 소설 『만다라』의 저자 김성동과 『가롯 유다에 대한 증언』의 저자 백도기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대학생모임을 활성화하여 학교 간 정보교류 역할을 하였으며, 도농 간 교류 협력을 위해 전남 영광 백수농장의 수박을 조합원들이 판매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수원 양협이 자리잡고 있던 수원역 앞은 오랜 기간 매매춘이 이루어지던 창녀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었는데 회원 중 한 명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창녀촌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상근자는 전무이사 한 명이었고 매달 10만 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었다. 수원 양협의 조합원은 최대로 많았을 때 130여 명 정도였는데 그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50명, 노동·농민 활동가 30명, 주부 10여 명, 기독교

청년회 10여 명, 기타 30여 명 정도였다. 수원 양협은 필요한 도서를 서울 양협에서 구입하거나 사회과학 출판사와 직거래하기도 하였다. 수원 양협은 조합원들의 주요 구성이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들이었고 그나마 그 숫자도 많지 않아 경영상태는 열악하였다.

이처럼 수원 지역의 양심적 학생, 지식인, 시민들의 모임터 구실을 하던 양협이 당국의 집중적 사찰과 감시를 받게 된 것은 1980년 5·18 민중항쟁 직후부터였다. 수원 양협의 전무 고정석은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5월 18일 밤 광주로 갔다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이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의 항쟁을 목격하고 5월 21일 수원으로 올라왔다. 그는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5·18 민중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조합원들과 함께 만들어 수원 전역에 살포하였으나 경찰에 적발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5·18 직후 관련 수배자도 한 명 피신시키고 있었고, 그해 여름 적발된 이른바 '미스 유니버스대회 폭파기도 사건'의 계획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이런 정황 때문에 고정석은 수원 양협의 전무직을 노동운동가 유동민에게 인계하고 검거를 피해 잠적하게 되었다. 이때는 5·18 민중항쟁이 유희 진압되고 신군부의 반동 쿠데타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으므로 수원 양협은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사찰 기관의 압박과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사기 저하로 양협의 유지, 존속은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1980년 여름, 수원 양협은 5·18 민중항쟁의 여파로 해산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미개지나 다름없었던 수원 지역에서 수원 양협이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다. 수원 양협에 모였던 사람들이 1980년대 이후 수원 지역 활동가로 성장하여 지역 민주화운동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²¹

24 수원 양협의 활동은 고정석 서면 인터뷰 (2004. 8. 14)와 한성호 서면 인터뷰 (2004. 11. 11)에 주로 의거하였다.

광주의 양협 운동

광주 양협은 1979년 3, 4월경 창립되었다.²⁵

광주 양협에는 광주 지역의 재야 인사들이 대부분 관여하였지만, 특히 교사와 교수들이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다. 교사로서 참여한 사람은 윤광장, 박석무, 박행삼, 송문재, 임추섭, 정해직, 문병란, 오정우, 김준태, 정규철 등이었고 교수로는 안진오, 송기숙, 재야인사로는 장두석 등이 대표적인 분들이었다.

창립 당시 양협의 정신적 뒷받침은 안진오(전남대 동양철학 교수 해직), 문병란(시인)이, 재정적 뒷받침은 장두석이, 실무는 황일봉이 각각 맡도록 하였는데 광주 양협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투옥된 경험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들도 많이 관여하였다.²⁶

광주 양협은 서울 양협을 모델로 하였지만 일반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처음부터 청소년, 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두었다.

광주 양협의 창립에 대해 윤광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⁷

1978년 6월 27일 '교육지표' 사건이 터진 이후 삼봉조합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목적으로 YWCA에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일종의 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양서조합을 자칭 광주의 사랑방이라고 불렀다. 우리 삼봉조합 선생님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이 양서조합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생들은 민청학련 관련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대사회문제연구

25 광주 양협의 자료는 5·18 민중항쟁으로 인멸되어 정확한 창립일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윤광장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1979년 봄이라고 하고 고정식은 3,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26 문병란 서면 인터뷰, 2004. 8. 12.

27 윤광장, 「유신정권과 싸워오던 현직 교사의 오월」,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 도서출판 풀빛, 1990.

소'에서 관리를 맡았다.

이처럼 광주 양협은 처음부터 중고등학생들의 독서지도와 의식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²⁸

광주 양협은 금남로에 있던 광주 YWCA 회관 2층 모서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빌려 책장을 진열하고 사무실과 서점을 겸하여 운영하였다. 광주 양협에는 정보과 형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참여 인사들과 회의 내용 등을 사찰하는 등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광주 양협은 창립과 함께 회원이 급속히 늘어갔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다. 양협에 참여한 교사들은 각 고등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도록 노력하였는데, 대동 고등학교(윤광장, 박석부, 박행삼 재직), 전남 고등학교(김준태 재직), 중앙 여고(송문재, 임추섭 재직) 등의 학생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독서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양협에서 대여한 양서를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을 넓혀 갔다.²⁹

특히 대동 고등학교에서는 1980년 봄에 '독서회'를 중심으로 학내 민주화 활동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 내의 각계 인사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던 광주 양협은 1980년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양협이 있던 YWCA는 「투사회보」 등 시민 측의 선전물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많은 양협 조합원들이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대동고 3학년 학생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김향현의 증언을 통해 들어보자.

28 박석부 서면 인터뷰, 2004. 11. 24.

29 위의 인터뷰.

(...) 그런 중에 YWCA 회관 1층 휴게실에 좋은 책을 보급한다는 취지 아래 양서조합이 생겼다.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출입하게 되었다. 나는 거기서 고등학생으로서 접하기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 양서조합은 대학 운동권의 총집결지였다고 할 수 있고, 재야 운동권 인사들과 몇몇 현직 교사들로 구성되어 운영해 나간 것으로 안다. (...) 1980년 5월이 되면서 학내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는 동안 대학가에서는 시내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시작했다. 나는 이때를 농칠세라 독서회 회원 20~30명과 일반 학생들 40~50명을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하는 대학생들의 대열에 참여했다. 1980년 5월 16일에 있었던 햇불행진에도 70~80명의 학생들을 동원했다. 그러다 5월 18일을 기점으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자 나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장성의 고향집으로 피신하여 내려갔다. (...) 5월 22일 나는 고속도로를 따라 도보로 광주로 나왔다. (...) 광주시내로 들어온 이레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무척 놀라운 것들뿐이었다. (...) 다음날(23일) (...) 나는 양서조합 식구들의 소식도 궁금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알아볼 겸 YWCA로 나갔다. 2층 양서조합에 가 보니 몇몇 어른들과 대학생 선배들이 먼저 나와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시민궐기대회를 준비하고, 다른 쪽에서는 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있었다. 안부를 묻는 몇마디가 끝나자 현주 누나가 나더러 할 일이 많으니 강당으로 가 보라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실험에 근무하는 용준이 형과 송백희의 어떤 누나가 작성한 대자보를 들고 나가 시내 곳곳의 담과 전봇대에 붙였다. (...) 26일 오후 다섯시쯤 계엄군의 광주진압설이 점점 사실화되어 갔다. 우리들은 끝까지 광주를 지키자는 생각에 도청으로 가서 총기를 지급받고 사용방법을 교육받았다.³⁰

30 김향현, 「YWCA 최후항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한국현대사료연구소 편, 도서출판 풀빛, 1990, 864~873쪽.

그리고 5월 27일 새벽, 양협 사무실이 있던 YWCA 회관은 계엄군의 총탄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양협의 조합원 박용준은 항전하다 사망하였고, 광주 양협의 중심 인물들은 대부분 검거·구속되었다.

계엄군은 양협을 폐쇄하고 서적과 일지 등 일체의 자료를 압수하였다. 이로써 광주 양협은 창립 후 약 1년여 만에 5·18 민중항쟁의 한가운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